

도쿄(東京)의 도시외교



2020 올림픽을 통한
세계제일도시로의 도약



도시외교 시리즈 ❶

도쿄(東京)의 도시외교

2020 올림픽을 통한
세계제일도시로의 도약

발행인 김봉현
발행처 제주평화연구원
발행일 2020년 11월 30일
디자인·제작 (주)디자인여백플러스

도쿄(東京)의 도시외교

2020 올림픽을 통한 세계제일도시로의 도약

CONTENTS

요약	2
I 서론	3
II 도시외교에 대한 선행연구와 두 나라의 접근방식 비교	5
III 도쿄 도시외교의 기본전략 분석	7
IV 결론과 시사점	22

도쿄(東京)의 도시외교

2020 올림픽을 통한 세계제일도시로의 도약

요약

이 글은 아시아의 글로벌 대도시인 도쿄의 도시외교에 대해서 논한 글이다. 도쿄는 2020년 하계 올림픽, 패럴림픽 유치에 성공하면서 장기간의 경제 불황으로 저하된 도쿄의 국제적위상의 회복과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로서의 여러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10년에 걸친 장기간의 도시외교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현재에도 도시외교 사업을 진행하여오고 있다. 도쿄의 도시외교는 커다란 범주로 2020년 하계 올림픽·패럴림픽 관련 사업과 도쿄와 같은 전 세계의 대도시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의 협력, 마지막으로 도쿄를 세계화의 도시로 만드는 사업의 크게 세 범주로 나뉘어 진행이 되고 있으며 유럽의 다른 도시외교와는 다르게 철저히 관료주도의 Top-Down 방식의 사업진행을 보여주고 있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의 10개년 계획에 입각한 장기 사업으로서의 도쿄의 도시외교는 그 목표인 올림픽을 통한 세계제일도시로의 도약의 실현가능성과는 별도로 우리나라의 서울과 가장 가까운 거리의 대형도시로서 같은 수도로서의 문제점과 노령화사회, 환경오염, 주거환경 등 다양한 방면에서 유사한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며 같은 글로벌 대도시인 서울과의 비교연구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 **주제어** 도쿄, 올림픽, 관료주도, Top-Down, 대도시 문제

I. 서론

국제외교에 있어서 도시외교라는 개념이 나타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그러나 중앙정부나 국가 사이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갈등국면에서 갈등해소를 위해서 도시가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들이 나타났고 최근의 4차산업 혁명 시대에는 중앙정부나 국가차원보다 도시차원의 협력이 더 가볍고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가능성의 하나로 논의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의 도시외교에 시사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 같은 동아시아 지역의 도쿄의 도시외교에 대해 논해본다. 특히 도쿄는 도시의 특성에 있어서 우리의 수도인 서울과 유사한 점이 매우 많아 국내에 주는 시사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도쿄로 대표되는 일본의 도시외교를 살펴 보면서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해본다. 또한 도쿄는 2020년 하계올림픽 유치도시로서 비록 세계적인 코로나 19 사태로 연기가 되었지만 2020년 올림픽을 도시외교의 하나의 커다란 종착지점으로 설정하고 다방면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같은 아시아 지역의 전 세계와 교류하여야 하는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진 나라로서 일본의 도쿄 도시외교는 기본방침부터 추진방향, 관련 법안정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참고 자료를 제공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동경도 도시외교 기본전략(東京都都市外交基本戦略)을 바탕으로 도시외교를 분석하고 이를 국내의 도시외교 연구들과 비교 분석하여 앞으로의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려 한다. 구체적인 논문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지는 II장에서는 도시외교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접근방식 및 두 나라의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연구가 되어 있지 않는 방향으로 연구의 독창성을 확보하고 III장에서는 구체적인 본론으로 들어가서 도쿄의 도시외교 기본전략을 자세하게 분석하고 장단점을 밝혀본다. 이어지는 IV장에서는 결론을 대신하여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한국적 시사점을 찾아내어 앞으로의 후속연구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한다. 그러면 이어서 II장에서 이제까지의 한국과

해외의 주요 도시외교 관련 선행연구들을 정리하고 이를 통하여 도시외교에 대한 두 나라의 접근방식의 차이를 고찰해본다.

II. 도시외교에 대한 선행연구와 두 나라의 접근방식 비교

그러면 도시연구에 대한 주요한 선행연구는 어떠한 연구들이 존재하는가? 여기서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아시아권과 영미권의 도시외교에 대한 접근방식의 차이이다. 유럽은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도시국가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 도시외교라는 개념에 대해 새롭다는 개념보다는 도시가 국가중심의 체제에서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당연하게 여기는데 반해 한국과 일본은 국가중심, 중앙정부 중심의 문화가 강하여 지방자치단체인 각 도시가 국가권력이 수행하는 외교를 수행하는데 주저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도 현저히 드러나는데 유럽의 경우에는 학술적인 연구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반면 한-일 두 나라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수립한 정책들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즉 민간연구의 분야가 활성화되어 있는 유럽과 관료주도의 한-일 두 나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커다란 경향 아래에서 도시외교에 대한 주요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유럽 쪽에서 가장 최신이자 눈에 띄는 선행연구는 Amirid와 Sevin의 편저자인 도시외교에 대한 저서이다. (Sohela Amiri and Efe Sevin “City Diplomacy and Future Prospects” 2020) 이 책은 도시외교의 글로벌 거버넌스와 지방정부 수준의 교류를 어떻게 세계적 차원에서 네트워크화 할 것인지, 그리고 성공적인 도시외교의 사례연구들로 이뤄져 있어 서구의 도시외교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파악하는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이러한 학술서 이외에도 유럽측 연구자들은 활발하게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학자가 미셸 아쿠토(Michele Acuto)이다. 그는 2010년경부터 지속적으로 도시외교에 대한 연구들을 발표해오고 있는데 도시외교와 국제정치, 중국의 대두, 대도시 사이의 네트워크화, WHO 등과 같은 국제기구와의 관계설정 등 다양한 주제를 연구해오고 있다. (Michele Acuto 2013, Acuto, Michele, et al. 2016, 2018, Leffel, Benjamin, and Michele Acuto 2017, Acuto, Michele, Mika Morissette, and Agis Tsouros 2017) 이에 비하여 한국과 일본의 연구는 다른

접근방식을 보인다. 일본의 도시외교는 이어지는 본문부분에서 자세히 서술하겠지만 철저하게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주도되고 시행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 살펴보는 대상인 도쿄의 경우는 도쿄도에서 수립한 장기적인 전략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앞에서 이야기한 동경도 도시외교 기본전략(東京都都市外交基本戰略)이며 이는 2020 도쿄 올림픽 유치 이후 매년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되어가고 있다. 이에 더하여 2014년 도시외교 사업이 출범하는 시점에 당시의 도쿄 도지사이던 마츠조에 요이치 지사의 논문이 존재한다. (2015 外交 90-96) 또 이케이 유는 올림픽과 일본외교라는 논문에서 올림픽을 이용한 외교를 논하고 있는데 이에 도쿄의 도시외교가 포함되기도 하였다. (池井優 2016) 한국의 경우도 도시외교가 학술적인 연구가 학자들의 연구가 주를 이루기 보다는 서울시의 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이 연구한 연구보고서(서울연구원 2017, 2019) 가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이야기한대로 유럽은 민간학술주도, 한국과 일본은 관료주도로 도시외교가 이뤄지고 있는 경향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감안한 가운데에 이어지는 III장에서는 도쿄의 동경도 도시외교 기본전략(東京都都市外交基本戰略)을 분석하여 도쿄의 도시외교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하여 도쿄의 도시외교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특히 유사한 규모와 정책을 가진 서울의 도시외교에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III. 도쿄 도시외교의 기본전략 분석

그러면 도쿄의 도시외교는 어떠한 이유로 시작되었고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가? 먼저 가장 큰 계기는 역시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유치이다. 이를 통하여 20년의 불황과 중국, 인도, 아세안 등의 대두로 낮아진 도쿄의 존재감을 회복시키고 도쿄와 나아가서는 일본의 발전을 이끈다는 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東京都 東京都都市外交基本戰略 1) 특히 2020년 하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많은 나라와 지역으로부터 참가가 가능하게 하고 많은 관광객을 포함한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든다는 목적에서 도시외교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이제까지 진행되지 않았던 도시외교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되어 있다. 도시외교 기본전략은 도쿄의 동경도 장기비전 10개년 계획 (2014-2024)의 일환으로 10개년 계획과 동일하게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되는 것을 목표로 수립되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큰 목표를 도쿄의 도시외교에서 들고 있는데 그 세 가지는

- ① 2020년 하계 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
- ② 현대 대도시들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과제 해결
- ③ 글로벌 도시 도쿄의 실현

을 들고 있다. 그러면 도쿄 도시외교의 기본적인 방침은 어떠한가? 같은 보고서에서 도쿄도의 주장에 따르면 세 가지 기본방침으로 진행된다(東京都 東京都都市外交基本戰略 4-5).

첫째, 도시외교가 도쿄의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이다. 세계화 시대에 대도시들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고 이에 도쿄가 이러한 대도시들 사이에서 외국 자본, 외국인 관광객, 국제회의 유치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도록 하는 도시외교가 되어야하며 도쿄 시내에 존재하는 각 나라의 대사관, 대표부들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여 도쿄가 외국인에게 생활, 비즈니스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외교는 이러한 시책들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발달하여야만 한다.

두 번째로 논해지는 원칙은 도시외교가 도쿄 도민의 생활 향상에 기여하여야 하고 도쿄 전 도청의 참여로 이뤄져야한다는 것이다. 도시외교는 국제적인 대도시 사이의 경쟁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이러한 도시들과의 국제적인 교류를 통해 메트로폴리탄 도시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협력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업은 불가피하게 도쿄도의 전 부처의 공동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전 행정부처의 적극적이면서도 효율적인 협력이 필요해지며 관련된 정책들을 모두 포괄적으로 관리하여 부처 사이의 상호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켜야만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정책들이 궁극적으로 도쿄도의 도민들의 생활 향상에 기여하여야 하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도시외교 자체가 지자체의 주민들의 이해와 협력이 없는 지속적으로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서 들은 원칙은 중앙정부인 일본 정부와의 연계의 원칙이다. 2020년 올림픽을 가장 큰 도시외교의 목표로 삼은 이상 중앙정부와의 연계는 필수적이며 도쿄가 도시외교를 각국의 주요도시들과 전개하는 것은 상호의 국가관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도시외교를 통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체 정부의 상호보완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제관계에도 기여를 하게 된다. 이러한 위에 열거한 세 가지 원칙은 도쿄만이 아닌 모든 도시외교를 수행하는 도시들에게 기본적인 원칙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한 도쿄의 도시외교는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는가? 도쿄의 도시외교의 시작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자매우호도시 제휴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1970년대부터 일본에서 시작된 소위 ‘지방의 시대’에 도시간 제휴가 활성화, 우호대표단의 상호도시방문, 청소년교류, 문화·스포츠 교류, 기업 연수의 상호방문 등이 시작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서 세계화가 진행되며 세계의 대도시들은 대동소이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류가 활발하게 추진하게 된다. 2001년에는 아시아 지역의 번영과 발전을 목표로 ‘아시아 대도시 네트워크 21’을 도쿄도의 발안으로 시작하였고 도시외교의 기반이 되고 있다.

도쿄의 도시외교의 방향성으로는 전략적인 두 도시 도시외교의 추진과 효과적인 다도시간 도시외교의 실시를 들고 있다. 기본적으로 도시외교에서 시작은 두 도시 사이의 교류와 우호증진으로 시작되지만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여러 지역의 도시를 포함한 도시외교로 진행되어야만 하는 필요성이 존재하나 여러 도시를 포함한 네트워크를 상시 유지하는 것은 많은 예산과 노력이 필요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그 효율성을 담보하기 매우 어렵다. 이에 도쿄의 도시외교는 두 도시 교류를 전략적으로 유지하면서 다도시 협력체의 경우에는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목적, 시기, 분야, 참가 구성원의 레벨 등을 필요한 범위 안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장 효과적인 대응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01년 시작된 아시아 대도시 네트워크 21도 같은 이유로 현재 총회는 중지된 상태로서 실무 레벨의 협의만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도 그 후 변화, 재해, 감염병 등 긴급하게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을 추진하는데 도시외교는 중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020년 올림픽이 COVID-19 으로 1년간 연기된 현재 이러한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그러면 도쿄의 도시외교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역시 도시 외교 전략을 수립하게 한 2020년 하계 올림픽의 성공을 위한 준비 작업이다. 이를 위하여 도쿄는 2016년 개최지인 리오데자네이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쳤고 리오에 도쿄도 공무원을 파견하여 개최 상황을 시찰함과 동시에 리오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선수들에게 도쿄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였다. 또한 자매도시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스포츠, 문화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시켜 대회에 대비하였고 2020년에 맞춰 도시외교를 통하여 세계 각국, 도시의 선진적인 사례와 경험을 받아들여 교통, 음식, 숙박 시설 등의 다언어화를 추진하고 관광 자원봉사, 어학 자원봉사자들을 육성, 외국인 여행객이 원활하게 도쿄 안에서 이동하고 쾌적하게 체재할 환경정비를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세계의 대도시들과 최신 기술과 당면한 과제들을 공유하여 서로 축적된 기술, 사업운영 노하우를 경험 등을 교환하여 win-win의 협력체제 강화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 도시들 사이에서 실무협력의 추진을 위해 위기관리 시스템 등의 지식을 공유하고 재해 상황 발생 시의 대처 방안이나 최근 코로나 19로 중요성이 높아진 감염병 대책에 있어서는 에블라, 신종플루, 메르스 등의 감염병에 대한 경험이 있는 도시와 정보를 교환하고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지구온난화 등의 기후변화 대책은 물론 대기오염 대책이나 폐기물 처리문제 등에 있어서도 여러 도시들 사이에서 정책 정보의 교환이나 기술지원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도쿄의 도시외교가 마지막 실현 목표로 삼는 것은 ‘글로벌 도시 도쿄’의 실현이다. (東京都 東京都都市外交基本戰略 14)

두 번째로 도쿄도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세계화로 인해 거대화된 각 나라의 대도시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과제에 대한 해결을 위한 협력이다. 현재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메트로폴리탄 도시화된 수도를 비롯한 거대도시들에서는 비슷한 형태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이에 대해 각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노하우를 공유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쿄는 여러 도시들과 축적해온 기술, 사업운영 노하우, 선진적인 사례연구, 경험을 서로 배워가는 과정을 통하여 여러 자매도시들과 win-win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도쿄도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상·하수도 설비와 재해에 대비한 위기관리에서 다른 아시아 지역 대도시들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실무협력 레벨에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실질적인 협력이 촉진되도록 여러 조치들을 시행하고 유사한 형태로 다른 도시들의 강점을 흡수하는 제반 조직을 구성하는데 목표를 둔다.

마지막으로 도쿄도의 글로벌화에 대한 대책이다. 2020년 올림픽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도쿄가 글로벌한 도시로서 자리잡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이 외국인에게 쾌적하게 체재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비즈니스하기 쉬운 도시, 국제금융센터가 설치 가능한 도시, 외국인 여행자가 다시 오고 싶어 하는 도시로의 변화이다. 이를 위하여 도쿄도가 가장 역점을 두어 실행하는 사업은 역시 언어의 장벽을 넘어줄 수 있는 외국어 가능 인력의 육성과 확보로 이를 위하여 도쿄에 주재하는 각 나라들의 대사관과 협력관계를 설정하여 미래의 글로벌한 인재양성의 효과도 기대한다. 이러한 모든 사업들을 위해 도시외교 인재육성기금을 조성하고 기존의 아시아 인재육성기금을 발전적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현재 도쿄는 12개 세계의 대도시와 자매도시협정을 맺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 1 도쿄의 자매우호도시 일람

(東京都 政策企画局 二都市間都市外交 2020 10월 13일 검색)

도시명	나라	자매도시 체결 일시
뉴욕	미국	1960년 2월 29일
북경	중국	1979년 3월 14일
파리	프랑스	1982년 7월 14일
뉴사우스웨일즈 주	호주	1984년 5월 9일
서울	한국	1988년 9월 3일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1989년 10월 23일
상파울로	브라질	1990년 6월 13일
카이로	이집트	1990년 10월 23일
모스크바	러시아	1991년 7월 16일
베를린	독일	1994년 5월 14일
로마	이탈리아	1996년 7월 5일
런던	영국	2015년 10월 14일

이에 더하여 아시아 대도시 네트워크 21의 참가국인 태국의 방콕, 베트남의 하노이, 인도의 델리,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필리핀의 마닐라 싱가포르, 타이페이, 미얀마의 랭군, 몽골의 울란바토르와도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어 지는 표들은 도쿄도가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통해 밝힌 구체적인 도시외교 사업들과 담당부처의 정리이다. 총 76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쿄도의 사업들을 앞에서 설명한 각각의 원칙과 지향점에 따라 분류하였다.

표 2 도쿄 도시외교 2020년 하계올림픽 관련 사업

(東京都 東京都都市外交基本戦略 24-25)

① 2016년 리오 올림픽관련 사업

관련 정책	개요	담당 부서
리오 올림픽·패럴림픽에서의 차기 개최지 도쿄 홍보	2016년 리오대회에서 도쿄의 매력을 홍보	올림픽·패럴림픽 준비국

② 자매우호도시 및 주요도시와의 교류 촉진

관련 정책	개요	담당 부서
자매우호도시와의 관계강화	자매우호도시들과의 관계강화와 우호촉진	정책기획국
해외도시와의 공무원 상호교류	자매우호도시 공무원과의 상호교류	정책기획국
일교일국(一校一國)운동 전개	2020년 올림픽에 맞춰 도쿄도 안의 학교당 한 나라의 교육을 실시	교육청 (생활문화국)
도쿄국제유스(U-14) 축구대회 개최	국내외의 유능한 유스 선수들에게 국제교류의 장을 제공	올림픽·패럴림픽 준비국
주니어 스포츠 아시아 교류대회의 개최	국내외의 유능한 주니어 선수들에게 국제교류의 장을 제공	올림픽·패럴림픽 준비국
스포츠를 통한 국제공헌 사업 (유도지도자 파견)	우수한 유도지도자와 올림픽 대표선수 출신 등을 파견하여 스포츠를 통한 국제교류를 모색	올림픽·패럴림픽 준비국
해외 주요 항구와의 정보공유 및 개발도상국에의 정보 제공	해외 주요 항구의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개발도상국의 요청에 의해 정보를 제공	항만국
오오타 기념관을 이용한 북경시와의 교류사업의 촉진	북경시 유학생의 오오타 기념관예의 입장을 도모	생활문화국
식물을 통한 국제교류의 촉진	해외의 식물관 등과의 식물의 교환, 기술면 등의 교류	건설국
동물을 통한 국제교류의 촉진	멸종 위기종의 동물의 보존 등에 대한 국제적인 교류를 촉진	건설국

③ 도쿄의 문화·예술 기능의 충실

관련 정책	개요	담당 부서
문화 교류의 추진	해외의 문화예술진흥기관과의 연계와 한·중·일 문화교류 등을 추진	생활문화국
다언어 대응방안의 추진	2020년 올림픽 개최에 맞춰 도시력 향상을 위해 불가결한 표지판의 다언어 대응을 강화	올림픽·패럴림픽 준비국, 정책기획국, 총무국, 재무국, 생활문화국, 도시정비국, 산업노동국, 건설국, 항만국, 교통국, 교육청, 경시청
관광 자원봉사자의 육성	거리에서 외국어로 관광안내를 하는 자원봉사자의 육성	산업노동국
외국인 현대 어학 자원봉사자의 육성	도쿄 시민을 대상으로 외국어(영어를 기본으로)로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원봉사자를 육성	생활문화국
중요 VIP 관리계획의 검토	외국으로부터의 VIP 일본 방문의 경우 경호 및 관리 계획의 전반적 검토	정책기획국, 건설국, 올림픽·패럴림픽 준비국

이상의 <표-2>가 올림픽 관련 도시외교 사업들이다. 특징적인 것으로는 일본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에 대한 다언어의 대응에 대해 도쿄도가 매우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며 실제로 관광객에 대하여 간단한 수준이라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일반 시민 자원봉사자들을 육성하는 사업도 포함이 되 있을 정도로 다언어와 시민들의 언어능력(기본적으로 영어)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지판에 있어서의 다언어 대응도 마찬가지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다언어 대응에 있어서는 담당하는 부서가 올림픽·패럴림픽 준비국, 정책기획국, 총무국, 재무국, 생활문화국, 도시정비국, 산업노동국, 건설국, 항만국, 교통국, 교육청, 경시청 등 거의 모든 분야의 부서가 총동원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도쿄도의 도시 외교 사업들 중에서도 최고의 중요도를 가진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는 2020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계기로 본격화된 도쿄 도시외교의 하나의 커다란 특징으로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는 다르게 뒤이어서 이어지는 <표-3>은 도쿄 올림픽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메트로폴리탄 대도시로서의 도쿄가 대도시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과제에 대한 대응을 위한 사업들의 목록이다. 이는 도쿄의 도시외교가 앞에서 서술한 세 가지 커다란 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재인식 시켜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표 3 도쿄 도시외교 대도시 공통과제 해결 사업

(東京都 東京都都市外交基本戦略 26-27)

① 세계 주요도시와의 정책의 교환 학습 사업

관련 정책	개요	담당 부서
세무행정에 관련한 도시교류	각 나라 지자체의 세무시찰단과의 교류를 촉진, 환경 등에 관한 조세정책의 의견 교환	주세국
환경 분야의 자매우호도시 교류의 실시	기후변화 대책을 포함한 대기오염, 폐기물처리 등에 대해 북경, 서울, 베를린과 교류	환경국
도시 만들기 분야에 있어서의 베를린시와의 교류, 협력	도시 만들기 분야에 있어서 베를린 시와 교류 협력을 추진	도시정비국
도시의 안전, 안심대책 분야에 있어서의 서울시와의 교류	건물의 내진설계 부문에서 서울시와 교류, 협력	도시정비국
수해대책에 있어서의 기술협력	서울시를 비롯한 아시아 여러 도시들의 시찰단, 연수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도쿄의 홍수대책의 기술을 제공	건설국
하천교량의 수명연장대책에 관련하여 서울시와 교류	하천교량의 수명연장에 대한 서울시의 시찰단을 받아들이고 신기술에 대한 의견교환, 인프라 노후화 대책을 공동 논의	건설국
도로싱크홀, 함몰등의 대응에 대해 서울시와 기술협력	도쿄와 서울의 건설담당부서가 도로 싱크홀, 함몰 및 노후화 대책에 대해 협의	건설국
소방구조 기술 협력 교류	소방 구조기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 상호 연수	도쿄 소방청
지하철 안전에 관한 서울시와의 교류 협력	지하철 각종훈련에 있어서 서울시와의 직원 상호 연수	교통국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해외도시와의 교류협력	도쿄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있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해외 대도시와 교류협력을 통해 해결방안 모색	복지보건국

관련 정책	개요	담당 부서
교통정책 해결을 위한 북경시와의 교류협력	북경의 교통상황 및 교통 인프라 시설상황에 대해 정보 의견 교환을 실시	청소년·치안 대책본부
선진적 교통정책을 전개하는 해외 여러 도시와의 정보공유	공공교통수단 활용과 자전거 이용 등 특징적인 교통 정책을 전개하는 해외도시와의 정보교환	도시정비국
도시 건설에 대한 정보공유	도쿄가 직면한 도시건설에 과제에 선제 대응하고 있는 해외도시와의 교류, 노하우 공유	도시정비국
타마 신도시의 재생에 관한 정보 발신	2020년 올림픽으로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해 타마 신도시의 홍보를 실시하여 신도시 재생에 기여	도시정비국
해안 보존 시설 정비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	도쿄가 이제까지 축적해온 해안보존 시설 정비에 관한 기술정보를 해외도시의 요청에 따라 제공	항만국
도서항만 정비에 관한 기술협력	해외도시의 요청에 따라 접안, 제방설비 등에 대한 노하우를 지도, 지원	항만국
수도 기술을 획득한 전문가 양성	직원 파견 및 연수생 유치, 정수처리 기술과 수도 정책 전문가를 양성	수도국
수도 기술을 활용한 아시아 여러 도시와의 사업전개	하수도 처리 기술, 수도 정책 등을 활용, 사업을 전개	수도국
상하수도 사업에 관한 자매우호도시 교류	상하수도 사업에 대해 북경 등의 자매우호도시와 교류	수도국, 하수도국
해외 인프라 정비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말레이시아 수도 정비 프로젝트에 대해 도쿄의 감리 단체와 연계하여 프로젝트를 지원	하수도국
하수도 기술의 해외 전개	기술개발 기업의 수요를 파악하여 하수도 기술의 해외 전개를 지원	하수도국
글로벌 파트너십 워크숍	공통의 문제를 가진 도시가 참가하는 실무협력 네트 워크를 확충	정책기획국

② 다도시간 실무협력의 촉진

관련 정책	개요	담당 부서
위기관리분야에 있어서의 해외도시와의 연계	자연재해, 테러, 대규모 사고 대응 등의 경험 및 노하우 축적, 위기관리 담당 인력의 양성을 통해 위기관리능력 상승을 유도	정책기획국, 총무국, 도쿄 소방청, 경시청
대기오염에 관한 아시아 도시들과의 환경협력	대기오염 대책에 관하여 아시아 여러 도시들과 정책정보의 교환, 기술지원 등을 실시	환경국
폐기물 처리에 관한 아시아 도시들과의 환경협력	폐기물처리에 관해 아시아 여러 도시들과 정책정보의 교환, 기술지원 등을 실시	환경국
기후변화 대책에 있어서의 세계 도시와 국제기구와의 연계 촉진	기후변화 대책에 공헌하기 위해 도쿄의 선진적인 대책을 홍보하고 세계의 도시들과 국제기구와의 연계를 촉진	환경국
감염병 대책의 협력관계증진	해외도시와의 정보교환 등을 통하여 감염병 정보 및 의견을 수집, 공유하여 대책을 충실하게 함	복지보건과, 병원운영본부
도시 간 경제교류 촉진	아시아 대도시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 기술개발, 인재육성을 통해 아시아 도시들과 더욱 깊은 교류를 가능하게 함	정책기획국
국제 물 협회 세계회의 개최를 통한 위상 제고	2018년 세계 물대회를 도쿄에서 개최, 상하수도 관련 선진기술을 홍보하고 노하우를 세계에 발신	수도국, 하수도국
여성의 활약을 위한 국제적 리더십 발휘	일본 정부가 주최하는 여성의 사회활약 촉진에 관한 심포지움 개최시기에 맞춰 도쿄도 국제적인 규모의 심포지움을 개최	생활문화국

위의 <표-3>은 도쿄의 주요 도시외교 사업 중에서 다른 도시와의 교류를 중점으로 하는 사업의 목록이다. 이를 살펴보면 여러 자매도시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행정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도쿄가 상하수도 사업에 있어서 자부심을 가지고 선진사업으로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다른 도시외교와는 다른 도쿄만의 차별성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아시아적인 특징으로 부서별 분담이 자세히 되어 있는 사실도 파악할 수 있다.

표 4 도쿄 세계화 도시 실현 사업

(東京都 東京都都市外交基本戦略 28-30)

① 외국인이 쾌적하게 체재 가능한 환경정비

관련 정책	개요	담당 부서
외국인 여행자 관련 환경정비	누구나 안심하고 도쿄의 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언어의 알기 쉬운 표지판 등을 정비	산업노동국
임해부도심의 외국인 여행자 관련 환경정비	2020년 도쿄 올림픽에 맞춰 관광객을 위한 Wi-fi 시설 등의 정비	항만국
올림픽·패럴림픽 관련 시설 주변 도로 등의 배리어프리 완결	2020년 대회를 찾는 모두가 안전하면서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사업의 완결	건설국
공공교통시설의 완전 배리어프리 화	지하철, 버스 등 공공 교통시설의 환승 등의 경우에 관하여 완전한 배리어프리를 실현	교통국
무료 Wi-fi 이용 환경의 정비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무료 Wi-fi 지국의 설치, 충실화	산업노동국, 올림픽·패럴림픽 준비국, 생활문화국, 건설국, 재무국, 항만국, 교통국

② 세계에서 가장 비즈니스 하기 좋은 1등 도시 도쿄의 실현

관련 정책	개요	담당 부서
국가전략특구 제도의 활용	국제적 비즈니스 거점 프로젝트 등에 있어서 특구 제도를 활용하여 활성화를 촉진	정책기획국
국제적 Life Science 비즈니스 거점의 실현	고부가가치형 산업인 Life Science 분야에 있어서 국제적인 비즈니스 거점 형성 촉진	정책기획국, 복지보건국, 병원경영본부, 산업노동국
도립·공공병원의 외국인환자 수용 환경 정비	다언어 진료체제 정비, 외국인 안심 의료 환경 충실화	병원경영본부
대형 크루즈선 정책 부두 정비	도쿄의 국제관광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0년 올림픽으로 수요증대가 예상되는 대형 크루즈 선박을 위한 부두 정비	항만국

관련 정책	개요	담당 부서
도쿄 항 보트 세일즈 충실화	대형 크루즈선 정박 사업과 연계하여 도쿄항의 보트 판매사업의 충실화를 촉진	항만국
도쿄 중소기업 해외 판로 개척사업 지원	도내 중소기업의 수요를 조사하여 해외 판로 개척에 행정지원 실시	산업노동국
도시 만들기 과에 의한 City Sales 추진	도시 만들기 과에서 도쿄에 대한 City Sales 사업을 추진	도시정비국

③ 국제금융센터 구상

관련 정책	개요	담당 부서
'도쿄국제금융센터' 구상에 입각한 활동 추진	국제적으로 인지된 도쿄의 국제금융도시로서의 위상회복, 국제금융회의 유치 및 개최, 고급 금융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준비	정책기획국, 총무국 외 관련부서

④ 해외를 향한 홍보 강화 사업

관련 정책	개요	담당 부서
해외 홍보사업 추진	해외 매스미디어와의 관계 구축, 영상에 의한 정보 전달, 콘텐츠 충실화 작업	생활문화국

⑤ 외국인 여행자 유치

관련 정책	개요	담당 부서
외국인 여행자 유치	여행목적지로서의 도쿄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고 유치 대상국,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여 가장 적합한 프로모션을 실시	산업노동국

⑥ 국제회의의 유치의 강화

관련 정책	개요	담당 부서
국제회의의 유치 강화	국제회의의 도쿄 유치를 지속시키기 위해 유치자금 보조등의 사업을 추진	산업노동국

⑦ 글로벌한 인재의 육성

관련 정책	개요	담당 부서
차세대 리더 육성 도장	사전 국내연수를 통해 넓은 시야, 영어능력, 도전정신 등을 가진 유학 희망의 고교생 지원	교육청
JET프로그램에 의한 외국 청년 초대 확대	도쿄도내 고등학교의 영어교육개선을 위해 JET프로그램에 의한 영어보조교사를 채용하여 국제적 청년세대 육성	교육청
영어 담당 교원의 해외 연수 사업	공립 중, 고등학교 영어 담당 교원을 영미권 대학에 파견, 최신 교육을 학습하게 함	교육청
교사, 아동의 상호 교류	자매학교나 이벤트 등을 통하여 교류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개척, 강화	교육청
청년해외협력대 등의 공립학교 교원 파견	청년해외협력대 등의 활동에 참가를 희망하는 교사를 '현직 교원특별참가제도'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에 파견	교육청
고난이도 연구 등을 통한 인재육성	동경도립대학에 대학원생과 박사과정생을 유치하여 고난이도 연구를 통한 인재를 육성	총무국
학생, 연구자의 교류·공동연구	동경도립대학의 대학원과 국제공동연구를 바탕으로 소속 대학원생의 공동연구와 학위논문심사를 시행	총무국
아시아 고도 선진 의료종사자 육성	동경도립대학에 개발도상국 유학생을 받아들여 최신의료 전문가로 육성	총무국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국제화 추진	동경도립대학에서 학생의 유학을 지원하여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인재를 육성함과 동시에 캠퍼스의 국제화를 위해 교환학생을 수용함	총무국
글로벌 사회의 리더 육성	동경도립대학에 해외연수를 필수로 하는 새로운 과정을 신설, 국제사회에 통용하는 인재를 양성	총무국
글로벌한 신세대 장인 육성을 위한 해외 체험프로그램	도립 산업기술고등전문학교에서 국제적으로 활약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해외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	총무국
사립학교의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	사립고교 학생 해외유학 지원	생활문화국

⑧ 재 도쿄 대사관 대표부와의 관계 강화

관련 정책	개요	담당 부서
도쿄도 주회사업에 대사·대표 초청	도쿄도 주최 행사에 외교관들을 적극 초청하여 도쿄의 매력을 발신	정책기획국
재동경외교단을 대상으로 한 재해 연락망 구축	재해 관련 연락망을 구축하여 외교관들에게 도쿄의 재해 대처 능력을 어필	정책기획국

마지막으로 <표-4>의 도시외교 사업들은 진정한 국제도시, 메트로폴리탄 도시로서의 도쿄에 대한 홍보와 글로벌한 차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홍콩 사태 이후 글로벌 금융허브로서의 도쿄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도시외교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아래의 <그림-1>은 도쿄의 올림픽 대비 다언어 대응 사업의 대표적 사례이다.

▶ 그림 1 도쿄의 다언어 대응사업의 대표적인 사례



(<https://www.2020games.metro.tokyo.lg.jp/multilingual/>)(2020년 10월 25일 검색)

이에 더하여 글로벌 인재육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동경도립대의 특설 웹사이트에 잘 정리가 되어 있다.(<http://www.thrf.ic.tmu.ac.jp/>) (2020년 10월 25일 검색) 이러한 결과를 보면 도쿄의 도시외교가 올림픽이 1년 코로나로 연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현재 도쿄도가 추진하고 있는 76개의 구체적인 사업들에 대해 정리하여 보았다. 이어지는 마지막 IV장에서는 결론을 대신하여 도쿄의 도시외교와 서울의 도시외교를 비교분석, 정리하고 도쿄의 도시외교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보려한다.

IV. 결론과 시사점

그러면 현재까지 정리된 도쿄의 도시외교를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유럽의 도시외교들과는 다르게 철저히 계획된 도시외교이다. 일단 2020년 하계 올림픽·패럴림픽이라는 국제적 대형 이벤트를 기점으로 2014년부터 2024년 간의 10년으로 기획된 10개년 계획으로서 아시아 지역의 개발도상국과의 관계 개선, 국제도시로서의 위상 회복, 중국의 대두에 따른 홍콩을 대체하는 금융 허브로서의 위치 모색 등 다양한 형태의 국가적 전술과 지방자치단체의 구상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기본방침, 추진방향, 구체적인 사업계획, 사업 추진을 위한 환경 및 법안 정비, 각부서 별 치밀하게 분담된 도시외교 관련 시책 등이 특징적이며 중앙정부(국가정부)와의 연계에도 힘을 쏟고 있다. 도쿄의 도시외교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도시외교처럼 도시 간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정책을 공유하고 문화와 관광 인프라를 홍보하는 소프트 파워 외교이자 개발도상국에 인프라 프로젝트를 제공하여 우수정책을 수출하는 도시외교라는 데에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효과적인 도시외교를 위해 중앙정부와 치밀한 연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외교에서 아직 충분한 지방분권이 이뤄지지 않은 측면과 비교하여 도쿄의 상대적인 강점이라고 할 것이다. 서울시의 현재 도시외교가 2018년 남북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서울-평양 협력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나 일본은 특히 동경은 일찍부터 ODA의 자본 등을 활용하여 아시아지역의 개발도상국의 인력에 투자를 해왔다. 현재에도 도쿄의 동경도립대학의 아시아 인재양성 프로그램은 다수의 젊은 세대 유학생들을 배출해 내고 있고 이들이 일본(도쿄)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각 개발도상국의 주요 지도층으로 성장하면서 다시 자신이 졸업한 코스로 유학생을 파견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지방자치단체의 거점 국립대 등에서 충분히 활용가능한 아이디어로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비단 서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수도는 아니지만 일반 지방자치단체보다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한 제주특별자치도도 충분히 동경의

도시외교를 받아들여 활용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도지사의 재량권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넓고 사증면제프로그램이 있는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성도 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이동이 원활하지 않지만 관광객의 이동이 많은 제주에서 제주라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외교(지방외교)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구체적으로 동경의 도시외교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외국인이 쾌적하게 체재 가능한 환경정비, 해외를 향한 홍보강화를 위한 다언어에 대한 대비(현재의 영어, 중국어 수준으로 정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제주포럼의 경험을 살린 국제회의의 유치, 제주도 내 대학생들의 글로벌한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이전 제주도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관광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다. 관광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극복할 수 있는 것도 도시외교의 장점이다. 물론 관광산업이 제주의 중요한 산업이기는 하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제주가 관광만이 아닌 여러 장점을 지니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세계에 알리고 제주라는 브랜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동경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브랜드 마케팅 방식이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다루어진 여러 도시들 중에서도 저출산, 노령화, 수출주도 경제, 지리적 위치 등이 유사한 도쿄의 사례는 후속 연구에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이후에 새롭게 추가되고 있는 감염병 관련 사업들은 한국도 유사한 환경과 문화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악화된 두 나라 관계에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잠재력도 제주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민간교류에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결론을 마치려 한다.

참고문헌

서울연구원 세계와 도시 18호 (2017)

서울연구원, 연구보고서, “서울시 도시외교 가능성과 과제” (2019)

Acuto, Michele. “City leadership in global governance.” *Global governance: a review of multilateralism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19.3 (2013): 481-498.

Acuto, Michele, et al. “City Diplomacy and Twinning: Lessons from the UK, China and globally.” *City Leadership Initiative, Department of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Public Policy, University College London (UK Government Office for Science)* (2016).

Acuto, Michele, Mika Morissette, and Agis Tsouros. “City diplomacy: Towards more strategic networking? Learning with WHO Healthy Cities.” *Global Policy* 8.1 (2017): 14-22.

Acuto, Michele, et al. “Toward city diplomacy: Assessing capacity in select global cities.”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2018).

Leffel, Benjamin, and Michele Acuto. “City diplomacy in the Age of Brexit and Trump.” *Public Diplomacy Magazine* 18 (2017): 9-14.

City Diplomacy Current Trends and Future Prospects

Editors: Amiri, Sohaela, Sevin, Efe (Eds.) (2020) Palgrave Macmillan

荒又美陽, et al. “東京オリンピックに向けて考える—グローバル化, 都市・地域開発, セキュリティ—.” E-journal GEO 13.1 (2018): 273-295.

池井優. “オリンピックと日本外交: 三つの東京オリンピック “を中心に.” *法学研究* 89.4 (2016): 1-34.

外添 要一 私が目指す都市外交: 2020東京五輪の成功に向け戦略的に展開 (2015) *外交 = Diplomacy* 29, 90-96, 2015-01

東京都 東京都都市外交基本戦略 2014-2020

東京都 政策企画局 二都市間都市外交

<https://www.seisakukikaku.metro.tokyo.lg.jp/diplomacy/city-to-city-diplomacy/>
(2020년 10월 13일 검색)

2020 올림픽·패럴림픽 대회를 대비한 多言語對應協議會 포털 사이트

<https://www.2020games.metro.tokyo.lg.jp/multilingual/index.html>(2020년 10월 25일 검색)

東京都立大學 都市外交人才育成基金

<http://www.thrf.ic.tmu.ac.jp/> (2020년 10월 25일 검색)

저자약력

김용민 건국대학교 중국연구원 연구전임조교수

영국 엑시터 대학교 정치학 박사 (2008) 정치사와 영국, 일본 지역 연구 및 비교정치를 연구하며 편서로 平成時代の日韓關係 (2020), 주요 논문으로 Explaining the Brexit Referendum: The Role of Worker Skill Level in Voter Decisions (2018), The Truth behind the Brexit Vote: Clearing away Illusion after Two Years of Confusion (2019)가 있다.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평화연구원은 2005년 1월 선포한 '세계평화의 섬' 제주를 구현하는 데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 2006년 3월 출범하였다. 연구원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확산시키고,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담론의 거점이 되고자 설립되었고, 평화를 주제로 한 과제연구, 국내외 연구기관과 학술교류,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 관련 정책대안 제시를 주요임무로 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지속적인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 및 다자대화와 다자협력의 논의를 위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의 개최 및 동아시아 다자협력의 제도화 연구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도쿄(東京)의 도시외교

2020 올림픽을 통한
세계제일도시로의 도약

